

2021 학년도 곤양고등학교

공모교장 지원서류

# 자기소개서

지 원 자	
소 속	○ ○ 고등학교
직 위	교 사
성 명	○ ○ ○

# 자기소개서

소 속	○ ○ 고등학교	직 위	교사	성 명	○ ○ ○
-----	----------	-----	----	-----	-------

## 1 들어서며 - ‘곤양사람’, ‘곤양고인’

저는 곤양에서 태어나 초, 중, 고를 졸업하고, 결혼하고 분가할 때까지 줄곧 곤양에서 살았습니다. 진주로 이사한 이후에도 주말이면 부모님이 계시는 곤양을 방문하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지금도 고향집과 텃밭을 돌보느라 주말마다 곤양을 찾는 완전 ‘곤양사람’입니다. 저보다 3회 후배인 아내와 저희 형제 둘, 처가 형제 다섯이 곤양고 출신이니 집안 전체가 ‘곤양고인’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무엇이든 배워야 한다는 부모님을 따라 농사일을 거들었으며, ‘남의 것 탐내지 말고, 지성(至誠)을 다하고 살라’는 부모님 말씀을 따라 큰 욕심 없이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하던 저에게 곤양고등학교는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없이 곤양고등학교에 입학하였고, 바짓단을 몇 번이고 접어 올린 교복에도 저는 자랑스러운 고등학생일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나 하교 후에는 일손이 모자라는 부모님을 도와 틈틈이 농사일을 돕느라 공부에 지장이 있었지만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그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부모님을 도우면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저는 절대로 농사는 짓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부모님 일손을 도우면서도 학업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3년 내내 부반장과 반장을 맡으면서 자랑스러운 곤양고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저에 대해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셨고, 저는 곤양고등학교 개교 이래 처음으로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진학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별다른 재주 없이 책 읽고 글쓰기를 좋아하던 저에게 고3 담임선생님은 국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평생 국어교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선생님은 저의 능력을 잘 발견하여 진학지도를 잘하신 것 같고, 저는 30년이 넘는 동안 이 길을 가고 있으니 진로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대학에 진학하여서도, 80년대의 혼란스러웠던 시대 분위기, 졸업정원제로 인한 어수선한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국어교육과 학생회장을 맡으면서 학업에 전념하였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중등학교 국어교사로 발령을 받아, 저는 곤양고등학교 출신 1호 중등교사가 되었습니다.



## 2 학생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한 35년 - ‘보람’ 으로 남다

초임지였던 남해성호중학교를 제외하면 근 30년 일반계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년부장만 4개 학교(명신고 3년, 고성중앙고 3년, 진주여고3년, 명신고 2년)에서 11년을 했습니다. 진주시내 일반계고등학교는 학년당 10학급 이상, 학생 수만 해도 350~450명에 이르고, 담임교사만 10명 이상으로 학년부는 보통 학교급 이상입니다. 당연히 학년부장은 다른 일반업무부장과는 달리 맡아야 할 역할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적어도 11년 동안은 가정보다는 학교 일이 우선이었고, 한순간도 학교 업무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보람’ 있는 일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맡을 수는 없었겠지요? 처음에는 사명감에서 자원하였고, 나중에는 원하지 않아도 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를 옮길 때마다 저의 전력은 따라다녔고, 학년부장은 자연스럽게 제 몫이었습니다.

교직 생활의 거의 전부를 학생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학(로) 지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승진과는 거리가 먼 생활이었습니다. 아주 잠깐 모교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치면서 기회가 되면 모교에 교장으로 근무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승진제도의 현실은 학생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학생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고생하는 교사들에게는 너무 멀고 높은 벽이었습니다. 그저 저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 생각하고 제게 주어진 삶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아주 뜻밖에,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그것도 제가 태어난 고향, 제가 졸업한 모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떤 모습으로든 변화가 필요한 모교에서 교장을 공모한다는 소식을 저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남은 정년 4년 6개월, 어쩌면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저에게 이번 교장공모는 충분히 가슴 뛰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기회가 없어서일 뿐이었지, 제 가슴 속에는 늘 모교에서의 교장을 꿈꾸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개교 48년, 그동안 모교 출신 교사가 근무한 예는 제가 유일합니다. 어쩌면 모교 출신 교장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합니다.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조용히 기다린다는 자세로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직접 발로 뛰는 교장이 되겠습니다. 교장 한 사람이 잘한다고, 교장의 열정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의 열정을 다하고 싶습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즐거운 일이 많지만,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일(得天下英才而教育之)이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최고의 즐거움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제자들은 모두 제게 최고의 영재였습니다. 어눌하던 말투로 안타까움을 주던 이름도 어렵뽀한 아이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연락을 해올 때,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판사가 된 제자가 고향 법원에 근무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의 수업에 영향을 받아 교사가 되었다는 제자의 전화를 받았을 때, 그들은 모두 다 천하의 영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곤양고등학교 학생들도 천하의 영재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재주가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먼 훗날 세상에 나아가 자신이 맡은 일을 잘 해나갈 재목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꿈을 이야기하고, 도움이 되고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남자영고등학교는 저의 교육 인생에 또 다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진학 지도로 지친 저에게 처음으로 근무하는 특성화고는 교육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학생들은 저를 쉬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다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고, 수업 시간이 즐겁고, 선생님을 만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밝게 인사하는 학교. 수능 점수, 학교 내신성적을 잘 받기 위해 경쟁하고, 학업에 쫓겨 지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침이면 음악 소리가 교정을 울리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활기차게 공부하는 모습, 문제 풀이보다는 시사 문제를 토론하고, 학교 공간을 혁신하는 아이디어를 만들고, 국어와 식품과 식물 전공 교사가 함께 수업하는 실험을 하는 학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하게 발표하는 학생들이 진심으로 칭찬하기 바쁜 학교, 가끔씩 제 곁에 와서 조용히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착한 선생님이예요.'라면서 웃어주는 학생이 있는 학교. 어쩌면 제가 새롭게 꿈꾸는 학교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3 맺으며 - 학생들과 함께 미래와 꿈을 설계하고 싶습니다

곤양고등학교는 학교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교장이 필요합니다. 제가 교장이 된다면 첫째, 학교의 문을 활짝 열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먼저 다가가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지역사회의 발전도 약속하지 못합니다. 필요하다면 학교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작은 학교 규모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인근 학교와의 공동교육과정 운영은 물론, 인근 대학의 체험 캠프, 중학교와의 교사 교류를 포함한 교육과정 협의, 다양한 체험활동 등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문제라도 학교구성원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기본 틀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필요하다면 특성화 교육과정 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학교구성원들과 협의하겠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밤낮없이 뛰어야 했던 일을 다시 해야 하는 교장이라면 저는 애초에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한데 어우러져 학생의 미래와 꿈을 이야기하는 학교,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자신의 능력만큼 공부하여도 대학을 진학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데 어렵지 않은 학교, 그래서 선생님도 즐겁고 학생도 행복한 학교로 만들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다가가서 진심을 다하면 적어도 지금보다 훨씬 나은 학교로 변할 것이라 확신합니다.